

오늘의 기사판

행사 (29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제 1회 광주·전남 고용포럼 = 오후 2시 광주상의 7층 회의실. 기업체·하계 및 경제유관기관 고용·인적자원 관리담당자 100여명 참석. ▲2006년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축산인 결의대회 =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우·낙농관계자 300여명 참석해 토론 및 결의대회. ▲광주·전남 지역 지역혁신 성공사례 예선대회 =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30일까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세미나 = 오후 2시 전남도청 4층 대회의실. 한양대 최승환(관광학부)교수가 '서남해안 기업도시 관광 개발의 과제와 전략'. 유주식 전남개발공사 기획총괄팀장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방안',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방안',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세미나 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

▲제 3회 전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전야제 = 오후 7시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30일까지. 전남지역 수산업경영인 3천500여명 참석 예정. (30일) ▲교통유발부담금 감감 심의위원회 = 서구청 상황실.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빅시티 앞. ▲트러스트 무용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춤 나들이 = 29일(화) 오후 7시30분 곡성 군민회관. 30일(수) 오후 4시 삼전강 청소년수련장 야외무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뽀빠'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등 공연. ▲화요예술무대 '리플레쉬' = 29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금난새&유리시인협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 30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남도소리상설무대 '컨템퍼러리 재즈' = 30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전시

▲한국화가 고훈석·천석 공 동작품전 = 9월3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그룹초대전 21세기 정신조각회전 = 9월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개점 11주년 기념전 '섬,역사문화 기행전' = 9월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북아트 페스티벌 = 9월6일까지 롯데회관. ▲광주청년작가전 = 30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서양화가 정춘수 개인전 = 30일까지 무등갤러리.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작품 41점 전시. ▲인(人)과 예술의 만남전 = 31일까지 향토문화센터 3층 오일문화관. ▲서봉한 서양화가 초대전 = 31일까지 동림우체국.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 = 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랑전 = 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역사속의 오늘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 태어남(1632) ▲1842년 영국·청, 난징조약 체결(1842) ▲상해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태어남(1876) ▲승려시인, 3·1 운동대표 33인중 1인 만해 한운운 태어남(1879) ▲미국의 발명가 잭슨, 지퍼 특허 따냄(1893) ▲대한민국 국권 상실(1910) ▲유도회 창립(1945) ▲가수 마이클 잭슨 출생(1958)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 결성(1961) ▲사자와 호랑이를 부모로 한 '라이거' 국내최초로 탄생(1989) ▲주5일 근무제 개정안 국회 통과, 주 44시간에서 40시간 근무로 축소(2003)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강타(2005)

뉴스퀴즈

27. 사형성 성인 오락기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은 성인용 오락기 뿐 아니라 경품용 상품권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처럼 화면에 문어·조개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멈추면서 배럴에 따라 점수를 얻는 릴게임의 일종인 사형성 성인오락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바다이야기 ②뿔집이야기 ③중국집 이야기 ④문어 이야기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열어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김옥진 (화순면연초 교사)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 전담교사로서 영어만 가르친 지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업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날, 한 아이가 뺨히 나를 쳐다보더니, "Excuse me, ma'am. May I say in Korean?" 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선생님처럼 눈도 커지고 코도 크나요?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는 코와 눈이 작았지만 영어를 하면서 코가 커졌지요?"

젊은 여교사의 주례

나는 어린애다운 그 아이의 발상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더니, 지난 겨울 제자의 주례를 섰던 일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조군은 내가 22살의 초임 시절 가르쳤던 제자로서 이제는 어엿한 어느 영화사의 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 결혼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주례를 꼭 서 주십시오" 조군의 전화를 받고, 나는 여자이며 아직 나이도 젊고 주례를 서본 적도 없거니와 주례를 설만큼 덕망이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하라고 장황한 이유를 들어 실득시키는 데 2주가 걸렸다. 그러나 조군은 서울까지 왕복 비행기표까지 가지고 와서 막무가내로 때(?)를 썼다. 할수 없이 은사님을 찾아가 주례로서 해야 할 일을 지도받은 후 주례사를 작성하여 날마다 저녁이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결혼식 날 나는 최대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베이지색

한복을입고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해 가며 주례 대기석에서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사회자로부터 "주례사 선생님은 신랑 조군과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첫사랑 애인으로, 현재 전라도 시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소개와 함께 피아노와 플루트 하모니가 어우러진 스승의 은혜'곡을 들으며 입장을 하니, 예식장은 위축된 듯이 조용하고 나의 떨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는 크지만 했다. 신랑·신부의 위트어린 링크, 다른 제자들과 하객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주례를 마치고 나니,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교육연수원에서 몇백명의 교사를 앞에서 영어와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10여 년간 해 왔지만 그렇게 떨리고 가슴 벅찬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제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이제는 어엿한 가정으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했다. 40대의 여교사 주례! 정말 환한 광경은 아닐 것임에 틀림없지만 나에게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면서 가장 보람된 하루였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은 7월 6일 庚寅)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Includes zodiac signs and specific advice for each day.

15인 광복절 기념 바둑대회. 15인 바둑판에 숫자 배치. 95, 189, 25, 23, 83, 55, 27, 94, 61, 41, 3, 22, 26, 73, 82, 2, 53, 50, 28, 75, 42, 40, 15, 19, 24, 17, 184, 27, 29, 51, 52, 96, 32, 97, 17, 16, 60, 14, 178, 183, 23, 30, 54, 31, 98, 49, 47, 33, 18, 59, 58, 171, 172, 231, 232, 80, 79, 77, 78, 34, 43, 38, 35, 36, 57, 20, 70, 84, 81, 76, 195, 207, 45, 44, 39, 37, 62, 69, 200, 92, 90, 89, 85, 88, 87, 194, 196, 197, 46, 21, 224, 5, 204, 203, 104, 91, 226, 221, 209, 86, 190, 193, 198, 201, 99, 215, 214, 67, 114, 225, 224, 208, 187, 191, 205, 175, 206, 160, 48, 153, 63, 74, 66, 68, 116, 105, 115, 220, 186, 93, 169, 174, 180, 166, 159, 154, 64, 56, 71, 65, 72, 218, 217, 230, 228, 118, 121, 168, 163, 140, 165, 212, 100, 234, 119, 117, 112, 113, 162, 157, 138, 139, 133, 132, 211, 73, 120, 108, 109, 150, 156, 137, 136, 13, 11, 1, 9, 144, 145, 4, 106, 107, 105, 122, 135, 134, 129, 11, 1, 9, 144, 145, 102, 99, 110, 123, 181, 130, 125, 7, 128, 6, 147, 10, 8, 141, 146, 103, 101, 111, 131, 127, 126, 124, 12, 148, 142, 143, 192

제15회 광복절 기념 바둑대회. 바둑판 이미지와 설명. 이 판은 234수 까지 가는 대 접전이 있으나 승부는 초반 우편의 접전에서 일찍 갈린 다소 싱거운 판이 었다. 이만재 5단의 패인은 백이 우편에 56으로 갈라쳐왔을 때 갑자기 흑 61로 상변에 두어간 수에 있었다. 이 수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도'의 흑 1부터 7까지를 교환해 두

바둑소식. 이창호 등 3명 도야타텐소배 8강.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이 28일 일본 기원에서 열린 제3회 도야타텐소배 세 계왕좌전 8강전에 진출했다. 이창호 9단은 중국의 구리 9단에게 24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으며, 이세돌 9단은 일본의 조선진 9단에게 245수 만에 백 5집 반승을 거뒀다. 박영훈 9단은 홍콩의 양시하이 8단을 꺾었다. 반면 최철한 9단은 중국의 쑹젠 6단, 박정상 9단은 중국의 창하오 9단, 조한승 9단은 중국의 장취 9단, 고근태 5단은 일본의 하네나오키 9단에게 패했다. 30일 열리는 8강전에서는 이창호-쑹젠, 박영훈-창하오, 이세돌-하네나오키 조가 대국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Go home and rest well' (집에 가서 푹 쉬어). 2. Japanese: '氣持(きもち)がいいわね' (기분이 좋군요). 3. Chinese: '这个菜要趁热吃' (이 음식은 뜨거울 때 드셔야 해요). 4. Korean: '解語花(해어화)' (꽃 해, 말씀어, 꽃 화). Each column includes text, grammar notes, and practice exercises.